

2012년 배합사료 산업 결산



김진형 전무
(주)카길애그리퓨리나

1. 육계농장의 수익성

2011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 육계농장의 극심한 불황의 골은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어둠의 계곡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우리나라의 육계 농장의 수익성을 분석해 보면 실감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면 작년 2, 3월 생산성 저하로 인하여 잠시 수익이 발생하는 듯하여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으나 이내 지속적인 만성 소모성 질병처럼 적자를 보이는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환자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있다.

<표 1> 2012 월별 육계농장 손익 결과와 예상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평균
수익성	—	+	+++	—	—	-	—	+	—	—	-	+	—

※출처 : CAPI

2012년 계육산업 사료부문 결산을 정리하는 마음은 무거우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생산성이 높은 농장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생산성 지

수(PI) 300 이상의 성적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농장의 목표이다.

2. 사료 생산량 추이

가. 전년대비 종계입식의 증가로 올 하반기에는 육계 사육 5~6% 증가 예상(?)

2012년 전반기를 결산할 당시에 하반기 전망을 제목과 같이 예상했었다. 그런데 현재 예측이 전혀 빗나가는 의외의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

종계 입식 현황을 보면 2010년 4월~12월

기간 동안의 종계입식은 5,086,780수로 2009년 4,431,950수에 비하여 무려 14.8%의 증가를 보였고, 2011년 동기간의 종계입식은 5,376,850수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 2009년 대비 21.3%의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이는 종계 사료량의 증가의 의미보다는 병아리 생산의 큰 증가와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3사분기 결과는 63,120톤으로 전년동기 66,087톤에 비하여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식수수 증가로 인한 미래 사업 전망을 불투명하게 본 종계업체의 적극적인 노계

〈표 2〉 종계입식, 사료생산, 육계가격 추이

	연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평균
육용계용PS 입식천수	2010	335	555	687	645	505	401	578	831	714	607	462	344	6,664	555
	2011	208	431	720	728	680	463	553	726	780	605	511	330	6,736	561
	2012	356	672	870	756	586	387	468	559	629	815			6,098	610
육용종계 입식 전년 대비증감	2010														
	2011	-127	-124	33	83	175	62	-25	-105	66	-2	49	-14	72	6
	2012	148	241	150	28	-94	-76	-85	-167	-151	210			-638	49
종계사료 생산량 (천톤)	2010	23,221	22,709	24,380	25,859	23,924	22,352	22,481	20,799	21,839	23,077	22,748	22,220	275,609	22,967
	2011	22,472	21,543	26,803	26,207	23,916	21,659	20,520	22,447	23,120	23,367	21,914	22,970	276,938	23,078
	2012	21,386	21,510	24,379	24,029	23,358	20,510	19,386	21,045	22,689				198,292	22,032
육용병아 리가격 (원/수)	2010	820	820	820	800	520	695	653	431	698	720	720	497	8,194	683
	2011	320	820	820	820	420	320	320	470	820	820	820	720	7,490	624
	2012	330	508	620	420	320	420	375	420	480	320			4,213	421
육계사료 생산량 (천톤)	2010	134,533	131,477	162,567	183,388	199,529	213,170	210,611	159,230	146,944	151,397	166,058	174,144	2,033,048	169,421
	2011	149,845	123,709	154,001	184,638	222,555	235,744	208,926	172,852	154,391	155,185	161,130	173,555	2,096,531	174,711
	2012	157,292	143,790	162,708	180,823	206,349	228,699	224,464	170,160	145,744				1,620,029	180,003
육계 가격 (원/kg)	2010	2,395	2,117	2,448	2,102	1,654	2,021	2,006	1,767	1,634	1,717	1,537	1,544	22,942	1,912
	2011	1,966	2,260	2,534	2,393	1,523	1,444	1,944	1,884	1,623	1,923	1,742	1,597	22,833	1,903
	2012	1,444	1,903	2,241	1,730	1,531	1,698	1,700	1,808	1,637	1,672			17,364	1,736

※출처 : CAPI

도태의 노력으로 적극적인 생산 조절이 수반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 결과만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업계의 협력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기능적 조절기능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나. 지난 9월까지 육계사료 공급량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에 그쳐

2012년 1사분기 육계사료 공급량은 463,790톤으로 전년동기 427,555톤에 비하여 무려 8.5%나 증가하여 닭고기 생산량을 전년 1억52백만 수에서 1억74백만 수로 16.4% 이상 증가시켰다. 2사분기에는 615,871톤으로 전년동기 642,937톤에 비해 오히려 4.2%가 감소되었고, 3사분기에는 540,368톤으로 전년 동기 536,169톤에 비해 큰 차이 없었다. 이는 2012년 9개월 동안의 총 생산량 1,620,029톤으로 전년동기 1,606,661톤과 비교하여 0.8% 증가에 그치고 있다.

다. 그런데 육계가격은 약세 지속

9월까지의 사료분야 결과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육계산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2012년 하반기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금년도 육계산업에서의 가장 큰 변수는 수입닭고기에서 찾는 것이 맞을 듯싶다.

1사분기에는 29,778톤으로 전년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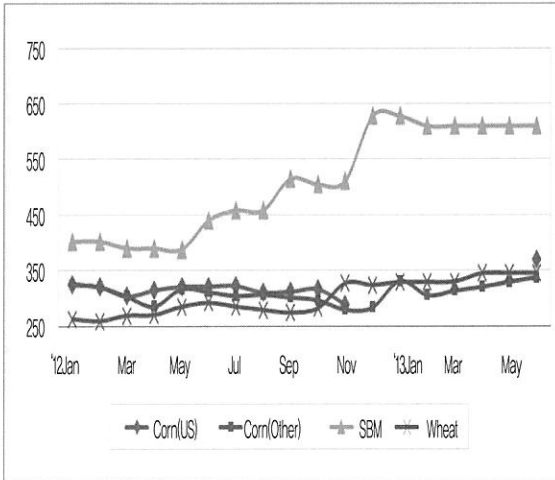
22,274톤 대비 무려 33.7%가 증가되었고, 2사분기에는 37,742톤으로 전년 동기 34,613톤 대비 9.0%가 증가해 있으며, 이는 상반기 평년 필요했던 수입량 34,494톤보다 196%에 이르는 물량으로 초과 수입량을 육계 사육수수로 환산하면 약 6천5백만 수에 이른다. 이는 한국의 1개월 도계수수와 비슷한 결과이다. 7월과 8월은 19,635톤으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년 15,789톤보다도 24% 이상 높은 수입량을 보이고 있다.

연말 수요 증가를 기대하지만 이러한 누적되어 이어지는 재고량 증가 유지에 따라서 육계가격은 당분간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듯하다. 가격 유지와 재고 관리의 양면성이 핵심이다.

3. 2012년 원료 시장 추이

지난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올 하반기와 내년도의 곡물 생산량이 최저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여 전 세계가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져 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추수가 당겨지면서 9월에 잠시 곡물가 상승을 제지할 수 있었으나 더 이상 호전되지는 않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말 재고율은 감소할 전망으로 밀은 3.8%, 옥수수는 2.4%, 콩은 0.9% 하락하여 옥수수는 사상 최저인 13.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옥수수, 대두박, 밀의 원료가격 흐름



※출처 : CAPI

가. 옥수수 : 강세

연초에 326USD까지 구매되었던 미국산 옥수수는 11월 300USD 이하로 안정되는가 싶으나 다시 상승하여 370USD까지 올라 있다. 그로 인해 발주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미국산과 비슷한 추이를 보여왔던 남미산도 330USD까지 올라가고 있다.

10월 USDA REPORT 발표 이후 미산 옥수수 기말재고 감소 및 미산 옥수수 수출 증가로 마켓이 상승하고, 남미산/동유럽산 옥수수의 내년 봄 공급량 부족이 예상되며 우크라이나의 소맥 수출 금지 발표에 의한 상승 요인이 있다. 최근 마켓 상승에 따른 Fund세력의 Profit Taking에 의한 하락, 미국의 본격적인 수확시기에 따른 계절적 요인에 의한 약세 요인이 병존한다.

나. 대두박 : 초강세

연초에 400USD대에서 9월 500USD대까지 치솟은 대두박은 12월 630USD 이상으로 폭등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타이트한 기말재고에 따른 현물시장 타이트한 공급 영향 및 중국의 경기회복세 전망에 따른 본격적인 신곡 대두 계약이 늘고, 미국의 강한 수출 증가 추이 및 남미 신곡 작황지역의 예상보다 다소 비호전적인 날씨 현황이 상승세를 주도한다.

또한 미국의 본격적인 수확시기에 따른 계절적 Fund의 Profit Taking에 의한 하락과 남미의 신곡 대두 작황, 호전적인 날씨 회복, 유럽 재정 위기 악화가 인하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 소맥 : 강세

최근 우크라이나 소맥 수출 금지 발표 및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동반 상승하고 있다. 남반구의 호주 기후 악화로 수확 예상량이 줄고 있는 것이 상승 요인이다. 연초에 260원대에서 연말 320원까지 치솟고 있다. 특히 소맥은 육계사료의 주요 원료인 만큼 예의 주시해 보아야 할 원료이다.

라.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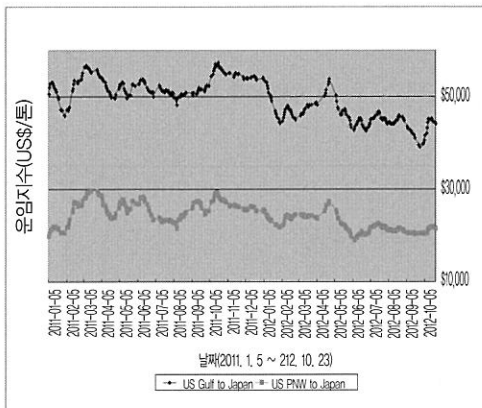
동물성 지방과 DDGS, 아미노산은 대체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채종박은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마. 해상 운임 : 안정세

올해는 곡물 가격의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사료 가격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세계 경제의 위기감에 따른 환율 변화와 신흥 대국들의 경제 발전 속도에 따른 해상 운임의 변화가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표 4〉 해상운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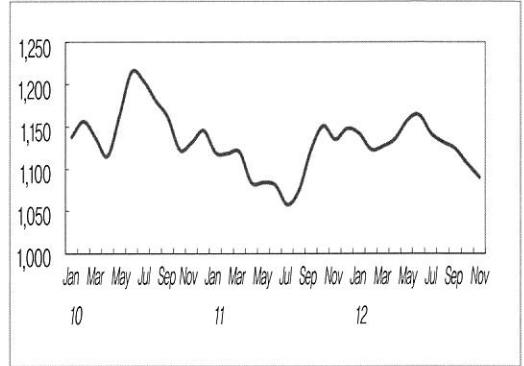


※ 출처 : CAPI

바. 환율 : 안정세 예상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의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110원 이하의 안정된 선에서 연말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환율 동향



※ 출처 : CAPI

5. 결론

기후의 영향이 가장 큰 제약요소가 되는 국제 곡물 가격 변동이 사상 유래가 없었던 2012년이였다. 이로 인하여 식량안보에 식량 위기설까지 전 세계를 강타했었다. 연말에 와서야 내년 예상수확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듯하나 일단 12월부터는 20원~30원 선에서 사료 가격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생산성 향상, 생산지수 300 이상의 성적으로 올 겨울 고비를 잘 넘기면서 내년 새로운 봄을 기다리자.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육계인이 되자. 